

공부 익기 전까지 선지식 절대 필요 내소사에 선방공사 내년 여름부터 결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요즘 학인들은 선지식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드는군요.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사무치게 공부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오히려 문제는 그런 사무침을 수행으로 이끌어 주는 선지식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지식이 귀하다'는 말에 대해서 듣기 좋은 말로 그래요. '아니야, 아직도 산중에 숨어 계시는 분이 많아' 하고 말이지요. 솔직히 말 좀 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산이 다 뒤집어져서 환한데, 어디 숨어있을 데가 있습니까. 차라리 골방에 숨어있다 하면 말이 돼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누구 책임 같은 것은 아니겠고... 소위 그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법시대는 모양만 남아있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렵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왔어요.
지금 전국의 사찰을 보세요. 불과 20~30년 사이에 외형적으로는 팔목할 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예를 들어 조계종 소속 사찰이 천개 가까이 되고 승려가 만명쯤 된다고 하는데, 한 절에 10명에 불과해요. 거기다가 해인사 같이 큰 절은 3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아니라 해도 통도사, 불국사, 법어사 같은 절을 고려하면 참으로 내실은 허약한 상태입니다.
결계절마다 방부어 이름을 올리는 수좌들은 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천 명 남짓이에요. 그 중에서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불퇴전의 각오로 공부하는 수좌는 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중 상당수는 해제 때 여비 넉넉히 받아서 편안히 지내는 식이예요.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선방 문고리 잡은 경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게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선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데, 달마 이후 육조 해능으로 이어지는 선불교의 전통을 보면,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라는 것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묘미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대중 앞에서 연꽃을 들어 보였는데, 가섭만이 빙그레 웃었죠. 순간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결코 말로 할 수도, 말로 일러 줄 수 없는 경지가 둘 사이에 열린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계합입니다. 상응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깨달은 경지를 일러 달라고 할 때, 스승의 반응입니다. 참으로 엉뚱하지요. 예를 들어, 경봉 스님께서 잘 그러셨는데, 누군가 깨달음의 경지를 물으면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지요.
'내 말하면 니 아나. 백도 없다.' 선지식의 어법은 이런 겁니다. 화두를 예로 들어 볼까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합니다.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 참으로 엉뚱한 대답이예요. 그러나 그분은 절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바로 일러주었던 말이지요. 그걸 물은 학인이 그걸 알았다면 '예!' 할 뿐이예요. 만약 모른다면 그때부터 의심덩어리 하나 마추하는 것이지요. 어째서 '뜰 앞의 잣나무인가' 하는 그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아주 멋들어진 선가(禪歌) 고유의 전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분히 신비적이고 알듯말듯한 세계인데 '인가(印可)'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시험을 보는 것이지요. 시험이라니까 조금 우습지만 시험을 봅니다. '한 마디 일러 보라' 했을 때,



꾸러 나갈 것인지가 궁금해집니다.
▲내년 여름 결계부터 시작할 겁니다. 선원 이름은 '봉래(蓬萊)선원' 이고요. 내소사를 감싸안은 산을 능가산 또는 번산이라고 부르는 데, 그중 봉래산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이지요.
결계 대중의 규모에 대해서는 잘라서 뭐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다만 원칙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선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사증 형편을 따를 것이 아니고요. 해제 때 여비 특별 주는 일 같은 건 하지 않을 겁니다. 한 명씩 봤던 두 명이 봤던 진실로 간절히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만 모인 그런 선원을 만들어 갈 겁니다.
—선방이 열린 이후 스님의 역할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여쭙는 것으로 대답을 마칠까 합니다.
▲더러 신문 같은 데서 저를 일러 조실이라고 한 걸 봤는데, 그건 맞아 죽을 소리고... 그저 대중과 함께 생활하며 선방에서 한 생 마감하고 싶는데, 건장하다 따라 줄까 걱정이네요. 내년이 돼야 일흔인데 주위에서는 벌써 노장 취급하러 들고...

대중 바른길 이끌어야 선지식 '이 길 간다' 확고한 신념이 중요

어쩌다가 엇비슷하게 맞추는 수도 있고, 실제로는 당체를 알지 못하면서 한번 해 본 말이 그럴 듯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하, 이놈 제대로 알았구나 하면 그게 인가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 또한 선지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지식 혹은 큰 스님이라는 말이 너무 절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큰스님 한번 만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나마 쉽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즘같은 세상일수록 큰스님을 더 자주 봐야 할 텐데 말입니다.
▲만약 인의 장막 때문이라면 분명히 잘못 된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힘든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수시로 넓은 데 모이려 하고서는 법문을 하면 되

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선지식이 귀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중 처소에서 공부할 텐데, 하루는 조실 스님을 뵈고 아침마다 문안을 올리면서 가르침을 청하겠습니까 하고 여쭙었지요. 그러자 그 스님께서는 대중 귀찮다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참으로 아쉬워요.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지요. 은사하신 해인 스님께서는 참으로 자상하게 그리고 사무치도록 간절히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선지도 밝으셨고 학덕도 도도하셨죠. 그분이 아니라 언설과 인품, 용성이 있어서 그런 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 내소사 한켠에서는 선방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결계를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관후스님

질게 어둠이 깔린 해인사의 아침이 아직 여름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어스프레한 새벽안개가 장경각을 휘감고 돌아 공현당 지붕위로 소리 없이 흐르던 날 새벽예불을 마친 학인 스님들의 간경소리 청아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좌우로 흔들려 소리내어 보는 야경종소리는 적막한 산사의 마지막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바로 그날 무사히 야경을 마쳤다는 안도감과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이 아무 생각없이 버릇처럼 공현당 계단을 막 닫고 올라서는 참나 "야 아놈아, 너는 몸뚱이가 성하고 두눈이 말짱하니 나까지 그런 줄 알았더니?" 벽력같은 고함소리에 하마터면 들고 있던 야경종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날 아침 나는 장주스님에게 심한 경책을 받아야만 했다.
해인사 장경각의 장주 관후스님. 스님은 키가 몹시 작았다. 짧은 시절 참선을 잘못해서인지 무릎조차 편치 않아 다리까지 불편하다. 그러면서도 성격이 몹시 꼬장꼬장해서서 대하기가 여간 어려운 스님이 아니다. 그런데 화필이면 그날 죽고 싶다는 요령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야경을 돌면서 아직도 컴컴한 도량 속에서 일찍 외출을 꺼버렸다. 외

다. 실제 장경각 으스스한 모퉁이에서는 원할한 통풍을 위한 창문을 사이로 손목을 비집어 넣어 경관을 만진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런곳은 닦고 닦아서 윤기마저 흐르고 있다. 그것을 스님은 당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몹시 죄스러워 하셨다.
찰밭전전의 일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휴거소동이 일어났다. 해인사의 도량 곳곳에서도 말세분자들의 유인물과 테이프 등이 다량 발견되었다. 사중 스님들도 행여 불상사가 일까 싶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곤 했었는데 대장경의 위신력인 스님의 공덕 때문인지 다행히 장경각은 별일 없이 그 흔한 유인물 한장 발견되지 않은 채 휴거소동은 끝났었다. 그 당시 스님은 잠도 못 자고 장경각을 지켰다고 했다. 스님의 장경각과 대장경에 대한 애착은 어쩌면 무서운 집념과도 같이 보인다. 장주소임을 맡은 지 이십여년이 되어 가지만 그 많은 세월동안 거의 외출을 모르고



장주소임 맡은지 20여년 지나 깨나 대장경지킴이

들은 마지막 야경을 들때 어둠의 상태를 확인하여 깨어나는 수칙을 무시했던 것이다. 해인사의 계단은 가파르다. 건장한 사람도 조심해야 하는 곳인데 그 가파른 계단을 달도 없는 컴컴한 어둠속에서 편치 않은 다리로 내려 오실려니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앞서기 푸르던 시절 학인때의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 봐도 죄송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해인사에는 고려와 조선조시대의 비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다. 민족의 수난 때마다 달리 의지할 데 없던 약소민족의 국운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극복하여 보고자 일지 삼배의 정성으로 경관 글씨 하나 하나에 민족의 아픔과 열원이 관각되어져 있는 대장경이다. 이 경관을 모셔두는 곳이 장경각인데 이 팔만대장경과 장경각은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관후스님은 이곳 장경각의 장주 소임자다. 대장경과 장경각을 지키고 보호하여 잘 보존되게끔 하는 일이 장주 소임중 하나다. 이른 아침, 채 여명이 걸리기전에 장주스님은 장경각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루일을 시작하신다. 간밤에 어떤 불상사는 없었는지, 누전 등의 위험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챙겨 보는 일이다.
해인사에는 관광객의 출입이 꽤 잦다. 스님은 관광객의 장경각 출입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가끔씩 호기심 등으로 인하여 장경각에 위태를 가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은 하루종일 노심초사해 하신

살아 오셨다. 내가 잠시 보존부 일을 맡아해 본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절대 장경각 열쇠 등을 맡긴 적이 없었다. 아무리 파곤하고 설사 병충이시더라도 손수 문을 열고 잠그신다. 어쩌다 잠시 자리를 뜰 때에도 두 번 세 번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그러한 스님의 모습에서 나는 칠백오십여년전 고려대장경 조성을 진두 지휘하셨을 수기스님을 연상한다.
신명을 바쳐 민족의 예환과 열원을 대장경에 새겨 조성하셨던 수기 스님과 자신의 삶을 오롯이 대장경과 장경각의 지킴이로 살아가는 관후스님은 대장경이란 틀 속에 자신의 일생을 던졌다는 의미에서 닮았다. 비록 시대가 변하고 맡은바 소임은 다르지만, 그 정신은 하나가 아니었을까? 일찍이 추사 김정희는 대장경 글씨 한자한자의 아름다움이 이세상 사람이 쓴 것 같지 않다 하며 극찬한바 있었다. 수기스님의 조성정신이나 관후스님의 지킴이 정신 또한 글씨 한 자 한 자의 아름다움만큼이나 남아 있지나 않았는지...
오늘 세속의 숲 속에서 사바세계에 은은히 퍼지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향기를 맡으며 관후스님의 무병장수를 기도해 본다.
*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불전함
도난방지 장 치
◆특허 2000-0011559◆
福田函
불전함 내부
충격상태
수신기(중주소 등 원하는 타정소에서 수신기 직통)
강제개폐
이동상태
◆점검장치와 송수는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음
◆특수 전자시스템이 금고 내부에 설치되어, 지정된 원격제어 S/W전파의 개폐가 절대 불가함
◆옥외용과 현지 사정에 따라 모델, 크기, 소재, 색상 등 주문생산이 가능함
본 System에 대한 사이언스를 연결 중요시 설비에 반영으로도 가능함
가격은 70만원부터 있습니다.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천상천하유아독존
(우복 속 전래, 구합 속 총본)
(나-그것 → 너-너 → 나-너)
머리 가슴 지나 배 속에 담아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 진정한 成人(아름)
참나 꽃 피우는 방편 꽃 우담바라 (화나한)
안은 없거나 밖이 두터워지는 비을 넣고 걸러지지 않으나 함께 못 하는 바라봄 넣고 틈새 하늘 뿐 구름 못 여는 이뤄보 넣고 얼굴 모두 아닌 숨글 국한하는 호흡 넣고 핵심인 의식보다 동작 중시하는 기공 넣고 열의 밖 아닌 마음 약 자처하는 명상 넣고 근원함일 제의 인과처방 자족하는 살리치료 넣고 모든 인간 여의주 보유 간파하는 의식개방 넣고 결국 자신과의 대화할 수 밖에 없는 체념량 넣고 풍요롭고 문제인 마음의의식 혼동하는 일체유심조 관통
【과점】
• 목덜미 여의주 깨내 손질
• 생각고치 안밖 자유 왕래
• 자부라기 속 무한성 확보
• 모두가 나인 세계에 진입
• 형성 가득 마음 마음대로
【특점】
• 애고 비을 죽임 아닌 확장
• 기존 핵심 용에 자원 혁신
• 숨글 포함 얼굴 모두 방출
• 성가 아닌 진진 놀이 진행
• 추가 과점 없이 안밖 전수
【세업 소감】
* 석가의 불의 예수의 유 종립 교인 세천년 비전* 박성민(공무원)
'食一眞和, 尊一舍, 見一觀 삶을 도로 노지 소인 성취' 김명철(교수)
'이름은 곧 고향, 천하로의 근원적 여행' 최우경(의사)
'원한 아닌 배려직행 짓고 지음 마술 아닌 미술' 김민식(회사원)
'죽어있는 것 흐르게 살아있는 것 본적이면 연애도 단' 박민지(주부)
'이로서 최대 거짓 - 나는 당신을 사랑 - 이 참된 되었네' 김명철(학생)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031)885-1011/016)206-1001
매일 셋째 월 15:00 ~ 15:00(참가비:55만원) 농협 111-12-336000 윤식대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희준』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力(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람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구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습기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떤면트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力(능력)자(레이키)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희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천인합일)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쓰는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떤면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力(능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 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1-제3단계, 3일정도 소요, 70만원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혜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 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탕판매인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승복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용·자·만가부루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에도 바퀴가 돌리듯 고교스럽게 디자인함.
4. 바탕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남 130,000
바지, 조끼 여
누비 남 180,000
(상,하) 여
방한복 남 130,000
(상) 여
바탕 大 30,000
中 25,000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56-8848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 섬유
대구시 동구 친선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